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46호

### 체육공단 '국민체력100' 프로그램

주3회 1시간씩 체력 다지니 치매 위험 '뚝'

양종구 동아일보기자

### 학생 선수 90% 중도 포기 "할 줄 아는 게 없어"

'0.1%' 신유빈 황선우 꿈꾸며 퇴로 없이 '올인'... 한국 스포츠의 비극

박준석 한국일보기자

### "심판잘못된 지시로 실격" vs "규정 숙지 선수 책임"

인천 초등학생 수영대회서 16명 무더기 실격에 '잡음'

김상연 연합뉴스기자

### "선수 학습권 보장, 인생 2막 지원해야"

졸업하고 프로 구단서 6년 버틴 야구 선수 7.8% 불과... '바늘구멍 인생'

송주용 한국일보기자

### 은퇴한 '테니스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테니스 전 세계 1위 윌리엄스,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 헌액

김동찬 연합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주3회 1시간씩 체력 다지니 치매 위험 '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처음 '국민체력100 체력 UP, 치매 DOWN'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950만 명 중 10%가 넘는 약 100만 명이 치매 환자인 것을 감안해 치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다.

국민체력100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을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한 뒤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아주대병원이 협업해 20주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와 함께 치매 관련 수치도 개선됐다.

국민체력100 서울 송파체력인증센터에서 65세 이상 남녀 노인 57명을 운동군과 비운동군으로 나눈 뒤 운동군의 경우 매주 3회 매회 60분 운동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운동은 준비 운동과 유산소 및 근육 운동, 협응성 운동, 브레인 운동, 정리 운동으로 짜여졌다. 흥미 유발을 위해 음악을 넣었고, 붕과 밴드 등 기구도 활용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주 15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 실시'에 따른 것이다.

운동군 참가자 권오돈 씨(74)는 "평소에도 운동을 즐겼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체중이 4kg이나 줄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금세 갔다"고 했다. 양경숙 씨(65)는 "처음 왔을 때는 한 발 들고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쉽게 선다"고 했다.

종합 테스트 결과 운동군에서 하체 근력이 12.4% 향상되는(비운동군 5.9% 감소) 등 비운동군에 비해 전반적인 체력 향상을 보인 가운데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인 ADAS-cog 수치도 운동 전 16.8에서 14.1로 떨어졌다. 이는 인지 능력이 16.1% 향상된 것으로 비운동군(14.6%)보다 높았다. ADAS-cog는 인지 능력 평가 방법으로 30이 넘으면 치매로 판단한다.

송홍선 과학원 박사는 "운동군에선 대뇌 전전두엽 혈관의 상호 연결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비운동군에선 거의 없었다. 운동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운동을 3개월 이상 하면 뇌의 모세혈관이 30% 증가한다. 운동으로 생성된 신경전달물질의 영향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경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새 신경세포는 자극이 없으면 소멸하는데 운동은 좋은 자극제가 된다. 송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들이 장기간 운동을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0.1%' 신유빈 황선우 꿈꾸며 퇴로 없이 '올인'... 한국 스포츠의 비극

#1. 올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방서연(23)씨는 중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로 활약했다. 10세 때 클럽에서 취미로 농구를 시작한 그는 남다른 재능 덕에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자연스럽게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문제는 방씨가 공부도 전교 1등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선 운동부에 들어가는 순간 운동에만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부모는 흔쾌히 딸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했다. 방씨는 '농구부에 가도 지금처럼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겠다'고 약속한 뒤, 농구 명문인 서울 숙명여중으로 전학을 갈 수 있었다.

각오는 했지만 농구부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수업 듣고, 훈련하는 '주경야독' 생활이 반복됐다. 그래도 농구는 즐거웠고 성적도 좋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 농구와 공부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한국의 고교 농구부는 훈련량이 많아 공부할 틈을 주지 않았다. 방씨는 미래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농구에 '올인'하는 대신 그만두는 길을 택했다.

#2. “아빠, 농구 제대로 해보고 싶어.” 3년 전, 직장인 정모(56)씨에게 중3 아들은 '농구부에 들어가 프로를 목표로 뛰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유소년 농구교실 때부터 '웬만한 선수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구계에 발이 넓은 정씨는 전·현직 프로선수에게 실력을 봐달라고 했다. 모두 “프로에 갈 수 있는 재목”이라고 했다. 명문고에서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제안도 해왔다. 하지만, 정씨는 아들과 상의 끝에 거절했다. “프로에 간다고 해도 서른이면 나와야 할텐데 이후 삶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업을 접고 농구에만 매달리기엔 선수 생명은 짧고 인생은 길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중학교 2학년 수영 대표 장희진(37)이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선수촌에서 합숙은 할 테니 학교에서 7교시 수업까지 듣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이유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희진은 선수촌을 떠났고, 대한수영연맹은 그를 징계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출전은 했지만, 이듬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를 계기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씨는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3년이 흘렀지만, 달라진 건 없다. 여전히 학생 선수들은 '운동이냐, 공부냐' 선택을 강요받는다. 운동을 택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바늘구멍 같은 프로 무대만을 바라보며 공부를 포기한다. 이렇게 외길 인생을 걷다가 운동을 그만두는 대다수 선수들은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한다. 외동 자녀의 인생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는 요즘 부모들은 '모 아니면 도' 운동부에 자녀를 보내려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종목이 학생 선수 '구인난'에 처한 배경이다.

한국일보는 학교 운동부 활동을 했거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끝내 선수 생활을 중도 포기했던 당사자와 학부모 11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국처럼 어린 선수를 '운동하는 기계'처럼 만드는 구조에서는 선수층이 두터워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선수 이전에 학생, 왜 안 될까?

우리나라는 왜 일본처럼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을까.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따라 학생 선수는 성적과 관계 없이 운동만 잘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다. 2016년 '정유라 사태' 이후 최저학력제 등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국대회 8강 이상' 같은 기록이다. 어릴 때부터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을 만들기 위해 훈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의 '한국 초·중·고 학생 선수 훈련시간 국내외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초등학교 축구 선수는 1주일 평균 19시간, 중학생은 22시간, 고교생은 28시간 훈련했다. 반면 독일은 초등학교 8시간, 중학생 12시간, 고교생 14시간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조사에서도 고교 선수 55.9%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성적을 만들려면 축구 명문고에 진학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 지도자도 단기간에 성적을 내기 위해 어린 선수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축구 선수 출신이자 경기 광문고 축구부 담당 교사였던 이현우(37) 교사는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하루 1~2시간 정도 훈련한다”며 “우리나라는 새벽·오후·야간까지 종일 축구를 시키니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음 장 계속

### 엘리트운동 포기이유와 어려움

포기이유	포기시점	진로 전환 이후 어려움
전교 1등 성적, 학업 집중 위해 포기	중학교 졸업 직후	농구를 포기해야 했던 아쉬움 지속
야구 선수로서 성공 가능성 낮다고 생각	고등학교 졸업 직후	야구 외엔 지식 없어 10년 동안 트럭제조, 철강업체 비정규직 전전
운동 선수로서 미래 막연	대학 재학 중	감독과 코치가 시키는 것만 해와서 사회성 부족
축구 선수로 성공 가능성 낮아	중학교 3학년	책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PC방 전전하며 방황
운동 선수의 삶에 회의의 느껴	중학교 3학년	운동만 하다 보니 중학교 때까지 영어 못 읽어



운동으로 먹고사는 건 10%도 안 된다

운동에만 전념해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신유빈(여자 탁구)이나 황선우(남자 수영)처럼 될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야구 축구 등 71개 종목에 학교 운동부 선수로 등록된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은 8만 1,000여 명이다. 그러나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대 종목 프로 선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 실업팀 선수(약 7,800명)까지 합쳐도 직업 선수는 1만 명이 안 된다. 학생 선수 10명 중 9명은 자의든 타의든 어느 시점에 운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다.

종목별로 보면 처참한 현실이 더 확실히 보인다. 한국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프로야구 드래프트 참가자 964명 중 현재까지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는 7.8%(76명)에 불과했다. 같은해 여자 프로농구 드래프트에 참가한 24명 중 여전히 프로에서 뛰는 비율은 고작 8.3%(2명)였다. 남녀 배구도 2017년 드래프트 참가자 중 각각 25.5%와 27.5%만 코트에 남아 있었다.

선수 출신 학생이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고 느끼는 막막함은 상상 이상이다. 태권도 선수 출신 정모(29)씨는 “열한 살 때부터 합숙하며 운동만 하다 중3 때 처음 펜을 잡았다. 영어는 쉬운 단어조차 제대로 읽을 줄 몰랐다”며 “운동만 할 줄 아는 바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축구 선수 출신 남규빈(21)씨는 “9세 때부터 축구만 하다가 중3 때 공부하려니 책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고,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매일 PC방을 전전하며 방황했다”고 했다.

어릴 때 운동을 관둔 선수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고교 졸업과 함께 야구를 그만둔 백진영(34)씨는 아무 준비 없이 사회에 나왔다. 야구 외엔 기술도 지식도 없었다. 백씨는 20대 내내 트럭제조업체와 철강업체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서른 살이 돼서야 유리 제조업체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회사 교육부터 영어로 진행되니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대학 때 야구를 접은 고선영(30)씨도 “운동 그만두고 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왜 멀뚱멀뚱 서 있느냐’ 다그치더라. 야구부에서 감독·코치가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사회성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대한체육회가 2019년 실시한 은퇴 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나이는 23.6세, 은퇴 후 무직 비율은 41.9%에 달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64.6%는 비정규직이었다. 월 200만 원 이하를 버는 경우도 절반 이상(51.6%)이었다.

### ‘정유라 사태’ 전으로 돌아가는 학교 운동부

학습권 보장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입시에 내신 성적 등이 반영됐다.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인정일수’도 지난해부터 중학교 12일, 고교 25일로 대폭 축소됐다. 그러자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의대 가는 학생이 체력시험 보느냐”, “대학 가려면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나”고 반발했다. 결국 인정일수는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확대됐다. 체육특기자 제도를 유지한 채 학습권을 강화하려다 보니 충돌이 생긴 셈이다.

그럼에도 운동을 그만둔 뒤 좌절감과 막막함, 불안감 등을 느꼈던 전직 선수들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고1 때 축구를 그만둔 윤진민(20)씨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두려운 마음에 축구부에 계속 붙어 있는 후배가 많다”며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2 여름에 축구부를 나온 서하늘(23)씨도 “운동을 그만둔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제2의 진로를 모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동부에 갇혀 있는 학생들에게 교우 관계,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일상’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농구선수 출신인 임용석(44) 충북대 교수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운동부라는 좁은 사회에서 지도자와 선후배만 접하며 수년째 고립된 채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며 “운동부에선 문제 되지 않았던 언어와 행동이 사회에 나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되면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 인천 초등학생 수영대회서 16명 무더기 실격에 '잡음'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미흡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이 실격 처리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잡음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7회 인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선수 16명이 부당하게 실격 처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논란이 된 경기는 대회 이틀째에 치러진 남자 초등부 계영 200m 종목이었다. 전체 10개팀이 1·2조로 나눠 시합을 치른 뒤 기록 순으로 최종 순위가 발표됐다.

이때 기록상 3~6위를 차지한 4개팀의 선수 16명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2번과 4번 주자가 대회 규정을 어기고 물 바깥에서 다이빙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대회 전 발표한 경기 규칙에는 200m 계영의 2번과 4번 주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물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심판진이 경기 당시 선수들에게 어디서 뛰겠냐고 묻거나, 출발대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1·2조 경기가 모두 끝나고 최종 결과를 전광판에 발표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판정이 뒤바뀌었다며 경기 운영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심판의 잘못된 출발 지시로 부당한 실격을 당했다"며 "1년 동안 땀 흘린 학생 선수들의 명예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수영연맹 측은 "당시 10개팀중 6개팀은 규정대로 시합을 치렀고, 심판들도 학생들에게 배운 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경기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린다"며 "시교육청과 협의해 실격 처리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 초등학교 183개교에서 1천430명이 자유형·접영·배영·평영·계영 등 5개 종목에 참여했으며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수영연맹 1급 심판의 지원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수영연맹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음 대회 때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졸업하고 프로 구단서 6년 버틴 야구 선수 7.8% 불과... '바늘구멍 인생'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별'을 꿈꾼다. 특히, 프로 리그가 있는 종목은 자유계약(FA)으로 큰돈을 버는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프로 진입조차 못 하거나 진입해도 5, 6년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현실은 냉혹하다.

한국일보가 신인 드래프트(선수 지명 선발) 제도가 있는 프로 스포츠인 야구, 농구, 배구 선수의 생명을 추적한 결과 프로에 입성해 6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이 일부 종목의 경우 1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구, 졸업 후 6년간 프로 생존율 10% 미만

선수로서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는 종목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였다. 대한체육회가 1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프로야구 드래프트에는 964명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10개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은 선수는 110명이었다. 6년이 지난 지금 몇 명이나 그라운드에 남아 있을까. 여전히 현역으로 등록된 선수는 76명뿐이었다. 드래프트 참가자 중 고작 7.8%만 살아남은 것이다.

다른 종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자 농구는 2017년 드래프트 때 24명이 참가했는데 당시 5개 구단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모두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까지 코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2명뿐이다. 드래프트 참가자 중 8.3%만 생존한 셈이다.

배구는 그나마 생존율이 조금 더 높다. 남자는 2017년 43명의 학생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해 25명이 지명받았고, 이 가운데 11명(25.5%)이 현역으로 뛰고 있다. 여자는 40명의 드래프트 참가자 중 16명이 지명받았는데 현재까지 뛰는 선수는 11명(27.5%)이다.

프로 지명 못 받으면 '살길 막막'

짧게나마 프로 무대를 밟아본 선수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운동만 했던 선수 중 대부분은 직업 선수가 돼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2017년 당시 고교와 대학의 야구부 소속 졸업 예정자는 모두 9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1.2%(110명)만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남자 농구(15.9%)와 여자 농구(23.7%), 남자 배구(18.3%)와 여자 배구(24.6%)도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25%를 밑돌았다. 한국에선 일본처럼 사회인 팀이나 실업 리그가 거의 없다 보니,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면 운동선수로서 이들의 경력은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사회인 야구팀이 워낙 많기에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도 대기만성이 가능하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23승 기록까지 달성했던 노모 히데오도 고교 졸업 뒤 프로 지명을 못 받자 '신일본제철사카이'라는 기업에 들어가 회사 생활과 야구를 병행하며 때를 기다리다 1990년 프로 구단에 입단했다. 이후 일본 야구를 평정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큰 활약을 했다.

한국에서도 학생 선수들이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학습권과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현우 시흥 장곡고 교사는 "은퇴 시점이 빠르든 느리든, 모든 운동선수는 진로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학생 선수들이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아야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테니스 전 세계 1위 윌리엄스,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 헌액

은퇴한 '테니스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AP통신은 18일 "윌리엄스와 미국 인권 운동가인 루비 브리지스가 2024년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고 보도했다.

2024년 미국 내셔널 여성 명예의 전당에는 총 10명이 헌액되며, 이 가운데 윌리엄스와 브리지스를 제외한 8명은 올해 3월 헌액 대상으로 먼저 확정된 바 있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은 최근 2024년 헌액식 날짜와 장소를 변경하면서 윌리엄스와 브리지스를 헌액 대상으로 추가했다.

1981년생인 윌리엄스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총 319주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17년 출산 후에 코트에 복귀, 2018년과 2019년에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총 네 차례 준우승했다.

이달 초에는 스포츠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 패션 디자이너협회에서 주는 패션 아이콘상을 받기도 했다.

1973년 처음 명예의 전당 입회자를 선발한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은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헌액 대상자를 배출했다.

스포츠 선수는 윌리엄스까지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운동선수로는 2021년 미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아 햄이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헌액식은 2024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운동하기도 바쁜데’ ...광주시체육회 인권조사 응답 3% 그쳐

<http://www.cmbkj.co.kr/ab-991-29750>

스포츠스태킹, “양손으로 하는 실내 스포츠” 세계대회 개막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707>

"사이버도박 빠져 접었던 '야구선수' 꿈, 다시 찾고 싶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5168300530?input=1195m>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 모교 송촌중서 재능기부

<http://www.cmbdj.co.kr/ab-991-25681>

한국체육학회, 한국평생스포츠코칭협회와 업무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8038700007?input=1195m>

‘6년 124억원 계약’ 오지환이 FA 신청한 이유는? [아하 스포츠]

<https://www.hani.co.kr/arti/sports/baseball/1116864.html>

"스포츠 마케팅팀 신설해 전지훈련·시합 유치해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059>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오는 24일 스포츠산업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11190250003&sec\\_id=5301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11190250003&sec_id=530101&pt=nv)

“G-스포츠클럽 활성화...엘리트-생활체육 연결을”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1425>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